

전자기록 환경에서 레코드 컨티뉴엄의 의의와 한계: 기록의 의미 및 속성을 중심으로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Record Continuum in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Focusing on Meaning and Nature of Records

김명훈(Myoung-hun Kim)

E-mail: sjmhwdhappy@hanmail.net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논문접수 2021-07-19

최초심사 2021-07-21

게재확정 2021-08-12

ORCID

Myoung-hun Kim
<https://orcid.org/0000-0002-9496-0760>

초 록

레코드 컨티뉴엄은 전자기록 환경으로 이행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기록학의 기반을 제공하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그동안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레코드 컨티뉴엄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이론으로, 핵심은 라이프사이클 모델과는 다른 기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따라서 전자기록 환경에서 레코드 컨티뉴엄이 지닌 의미 및 한계를 분석하고 보다 심도 있는 이론적 개발을 위해서는 레코드 컨티뉴엄 논리 속에 함유된 기록의 의미 및 속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에 대해 별도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 속에 함유된 기록의 의미 및 속성을 축선 및 차원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의 의미 및 속성 도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컨티뉴엄 모델상의 차원 1 및 차원 2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어 컨티뉴엄 논리 속에 함유된 기록의 의미 및 속성을 라이프사이클 모델과 결부시켜 고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컨티뉴엄이 지닌 의의를 고찰한 다음, 기록의 의미 및 속성 관점에서 컨티뉴엄이 지닌 한계를 제시하였다.

ABSTRACT

Record continuum is a theory providing the basis for archival science in the paradigm shift to the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However, critical analysis of it has been hardly performed so far, as it is still in development, and its core is a new perspective on records different from the life cycle model. Therefore, for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record continuum in the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and performance of more in-depth theoretical development, an analysis of the meaning and nature of records contained in record continuum logic is essential. Given that record continuum does not define a record separately, the meaning and nature of records it contains in the recent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are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axis and dimension in a record continuum model.

Keywords: 레코드 컨티뉴엄, 라이프사이클, 기록, 아카이브, 전자기록

Record Continuum, Life Cycle, Record, Archive, Electronic Record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2244).

<https://jksarm.koar.kr>

1. 서론

레코드 컨티뉴엄(Record Continuum, 이하 컨티뉴엄으로 약칭)은 종이기록 시대를 주도한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반향으로 태동한 이론으로, 전자기록 환경으로 이행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기록학의 기반을 제공하는 이론 체계로 자리해왔다.¹⁾ 컨티뉴엄은 기록 생성 메커니즘의 변화 속에 종이기록과는 다른 전자기록이 지닌 기록으로서의 의미 및 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에 출발점을 둔 것으로, 기존의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이원화된 기록의 개념 및 기록관리 패턴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호주 AS 4390에서는 컨티뉴엄을 기록의 생산 시점 내지 그 이전부터 아카이브로서의 보존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관리체계로 정의하는데, 이는 라이프사이클에서 제시한 이원화되고 단절적인 관리패턴과는 엄격한 차이를 지닌다(Flynn, 2001, 80).

컨티뉴엄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업무 메커니즘의 변화 및 이로 인한 전자기록의 출현 속에 기록 및 기록관리를 둘러싼 복잡성을 인식하는 도구로 개발된 것으로, 우선적으로 기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Upward, 2000, 116-117). 즉 생산목적과는 다른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라이프사이클 모델과 달리, 기록이 생산되는 복합적 현실 속에서의 기록의 다원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기록에 대한 시각을 기반으로 단절적인 기록관리를 지양하고, 컨티뉴엄에서는 생성부터 최종 보존에 이르는 연속적인 기록관리체제를 지향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컨티뉴엄의 핵심은 라이프사이클 모델과는 다른 기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비현용 단계에서 나타나는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이원화된 기록 개념 및 여기서 연유하게 되는 양분화된 기록관리체제에 대한 반론으로 개발된 이론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록생산 환경에서 기록의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을 모색한 개념적 모델인 컨티뉴엄은 아직 개발 중인 이론으로(Upward, 2000, 121), 기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자기록 환경에서 컨티뉴엄이 지닌 의의 및 한계를 분석하고 보다 심도 있는 이론적 개발을 위해서는 컨티뉴엄 논리 속에 함유된 기록의 의미 및 속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이 전제되어야만 컨티뉴엄이 지닌 의의와 함께 한계 역시 고찰이 가능하며, 사전적 업무분석 및 획득 등 컨티뉴엄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절차들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1996년 컨티뉴엄의 정립 이후 이와 관련된 해외의 연구성과들은 대부분 컨티뉴엄의 소개 내지 해설에 집중되었다(McKemish, 2017; 2001; Nesmith, 2008; Piggott, 2005b; Reed, 2005b; 2005c; Flynn, 2001; Cook, 2000; Upward, 2000). 이는 컨티뉴엄이 형이상학적 이론을 연역적으로 대입시켜 매우 난해하게 개발된 것에 따른 귀결로(Piggott, 2012, 180), 컨티뉴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록의 의미 및 속성을 단일 주제로 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이승억(2001)은 컨티뉴엄을 기반으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도적 의미를 모색하였으며, 노명환(2016)은 기호학 및 성리학적 관점에서의 기록 및 기록관리에 대한 의미 모색을 위해 컨티뉴엄을 고찰하였다. 원종관(2007)은 증거와 기억의 조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컨티뉴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김명훈(2010)은 기록콘텐츠 개념 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컨티뉴엄의 평가 논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김명훈(2017)은 컨티뉴엄의 4개 차원을 소개한 후 실제 교회기록 콘텐츠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김명훈(2021)은 1950년대 호주의 역사적 상황과 결부해 컨티뉴엄 이론의 기원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컨티뉴엄 이론 속에 함유된 기록의 의미 및 속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컨티뉴엄 모델상의 축선 및 차원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축선 및 차원은 행위를 통해 기록이 생성·획득되어 복합적인 맥락 속에 의미 내를 지니게 되는 다원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해주기 때문이

1) 본고에서 언급한 전자기록 환경은 전자기록관리만 수행되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은 전자적 형태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생성된다. 하지만 그 주류는 전자기록으로, 이로 인해 기록의 속성, 기록관리 방식 및 논리 등 종이기록 환경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지니게 된다.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개발된 것으로 아날로그 기록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이론적 핵심은 전자기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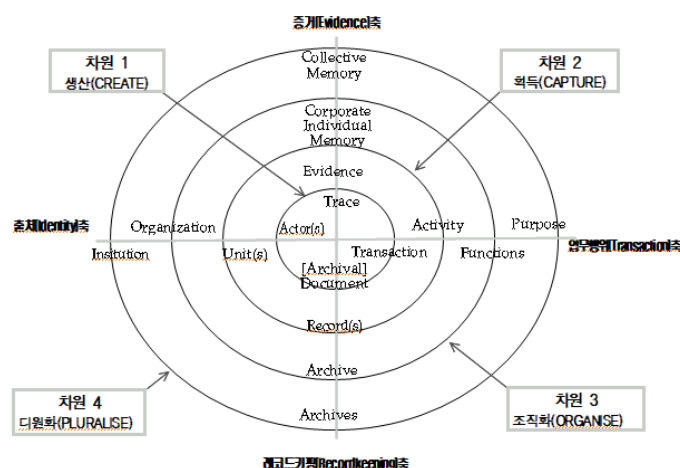
다. 특히 본고에서는 컨티뉴엄 모델상의 차원 1 및 차원 2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의 증거성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춘 컨티뉴엄의 논리상, 기록이 지닌 의미 및 속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기록의 의미 및 속성 도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컨티뉴엄 모델상의 축선 및 차원, 특히 차원 1 및 차원 2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2장의 분석을 토대로 컨티뉴엄 논리 속에 함유된 기록의 의미 및 속성을 라이프사이클 모델과 결부시켜 고찰하고자 하였다. 컨티뉴엄은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반향으로 개발된 이론 체계라는 점에서, 라이프사이클 모델과의 비교는 컨티뉴엄이 지닌 기록의 의미 및 속성을 보다 명료하게 부각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컨티뉴엄이 지닌 의의를 고찰한 다음, 기록의 의미 및 속성 관점에서 컨티뉴엄이 지닌 한계를 나름의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컨티뉴엄과 기록의 다층적 접근방식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컨티뉴엄에서 지향하는 기록의 의미는 컨티뉴엄 도해 상의 축선 및 차원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이는 레코드키퍼링이 출발하게 되는 최초 의사소통 행위로부터의 움직임을 도식화시켜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Upward, 1996), <그림 1>과 같은 축선 및 차원을 통해 기록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축선 및 차원을 기반으로 한 컨티뉴엄의 이러한 다층적 접근방식은 기록의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서의 사회생활’(The Social Life of Document)이란 이론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이는 인터넷 통신 및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생활 속에서의 구성원 간의 상호 소통 관계를 조명한 이론으로, 문서가 공동체 사이의 경계에서 활용·통제되는 방식을 설명해준다(Brown & Duguid, 1996). 이는 곧 컨티뉴엄의 축선 및 차원 구성이 형이상학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닌, 기록이 생성·획득·유지·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만든 것으로, 이를 통해 기록을 둘러싼 다양한 엔티티들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업워드는 설명하고 있다(Upward, 2000, 117).



<그림 1> 레코드 컨티뉴엄 모형 도해²⁾

2) 위의 다이어그램은 1996년 업워드가 제시한 다이어그램의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즉 Representational Trace는 Trace로, Act는 Transaction으로, Organizational Memory는 Corporate Memory로 부분적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McKemish, 2017, 138, 그림 4-1).

컨티뉴엄에서는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증거축 및 레코드키퍼축을 통해 기록이 지닌 의미를 다층적으로 제시한다. 즉 증거축에서는 흔적-증거-기억-집단기억으로 층위를 설정해, 기록이라는 그릇에 담기는 의미 내지 가치를 개념적으로 형상화 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증거축과 연동된 레코드키퍼축은 인간의 행위를 기록화한 매개 수단 영역을 나타낸 것으로, 행위의 흔적으로 재현한 도큐먼트, 증거로서 획득된 기록, 개인 내지 조직 기억으로서의 아카이브 및 범사회적으로 의미가 확산되어 집단기억을 구축하는 아카이브즈로 기록을 개념화시키고 있다 (Upward, 1996).

축선에서 개념화한 이러한 기록의 의미는 컨티뉴엄 도해 상의 차원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아울러 차원은 기록의 획득 이전부터 축선 상의 엔티티들과 연동해 기록을 다원화된 생산맥락과 연계시키며 기록의 의미를 모색해준다. 이는 특히 차원 1과 차원 2를 통해 세부적으로 구현된다. 후술할 바대로 차원 3 및 차원 4에서의 기록이 지닌 의미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기록 획득에 초점을 맞춘 컨티뉴엄 논리상, 이는 차원 1과 차원 2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먼저 컨티뉴엄의 차원 1인 생산(create)은 모든 행위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행위의 ‘흔적’(trace)이 생성되는 지점이다. 즉 기록 생산 출처로서의 개별적 행위자(actor)들이 특정 행위를 수행하며, 이로부터 일어났던 있는 그대로의 행위 내역을 의미하는 흔적이 생성되게 된다(Upward, 2000, 121-122). 개인이든 조직이든 언제나 스스로의 행위 내역을 그림이든 문자든 모든 가능한 매체를 통해 남기게 되고, 레코드키퍼 영역에서는 이러한 흔적을 저장하고 아카이빙하여 행위 내역을 다시 상기시키고 재현해 되새기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McKemish, 2005, 1-2). 차원 1인 생산은 이러한 역할의 단초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모든 행위의 자취(locus)를 통해 기록화된 정보(recorded information)가 산출되게 된다(Reed, 2005b, 20).

단 차원 1에서 생성된 행위의 흔적으로서 기록화된 정보는 아직 행위에 관한 증거로서의 기록(record)은 아니다. 환원하면 하나의 생명체인 나비로 탄생하기 위한 전 단계인 애벌레 시점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기록화된 정보는 아직 형성 과정 중에 있는 행위의 재현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모든 기록화된 정보가 모두 기록으로 획득되어 관리되지 않는다(Reed, 2005b, 19-20). 이를 위해 컨티뉴엄에서는 기록 전 단계로서의 객체를 의미하는 도큐먼트(document)란 개념을 도입하여 기록과는 다른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도큐먼트는 종이라는 매체에 문자로 작성된 내용전달 수단을 지닌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행위에 대한 흔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모든 대상을 말한다(Hartland, McKemish, & Upward, 2005, 75-76). 가령 나이테는 나무의 나이 및 성장과정을 남긴 도큐먼트이며, 화석 역시 동일한 의미에서 도큐먼트가 될 수 있다. 예술작품, 기계, 공예품 등도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도큐먼트가 되며, 최근 디지털화 환경에서 수없이 생성·유통되는 0과 1의 비트스트림 역시 도큐먼트이다. 이러한 도큐먼트 개념은 젠킨슨의 이론을 기반으로 도출된 행위의 흔적을 개념화시킨 가장 적절한 용어로, 수많은 도큐먼트 가운데 행위에 대한 완전무결한 증거로서의 기록을 획득한다는 사고가 도출된다(McKemish & Upward, 1991, 19-22).

컨티뉴엄에서 상정한 차원 1인 생산은 본질적으로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한 사고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다양한 컴퓨팅 기기 및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수없이 많은 0과 1의 비트스트림이 행위의 흔적으로 생성·유통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0과 1의 비트스트림이 모두 기록으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다(Duranti, Eastwood, & MacNeil, 2002, 2-3). 기록의 기본 요소인 내용과 맥락, 구조가 각기 분리되어 존재하는 전자기록의 특성은 다원적인 맥락에 대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파악하게 하며, 이를 통해 수많은 0과 1의 비트스트림 가운데 맥락을 지닌 증거로서 의미가 있는 대상을 기록으로 획득하기 때문이다(Cox, 2001, 4-5). 이러한 이유로 인해 컨티뉴엄에서는 증거로서의 기록으로 획득되기 전인 차원 1에서 도큐먼트가 생성되는 환경 및 업무에 대한 사전적 분석이 필수적으로 수행되도록 상정한다. 행위가 수행되는 다원적이고 복잡화된 맥락이 파악되어야 증거로서의 기록으로 치환될 수 있으며, 아울러 수많은 도큐먼트 가운데 개인 및 조직, 사회에 의미를 지니는 대상을 기록으로 획득하기 위해서이다(McKemish, 2005, 9-10).

컨티뉴엄의 차원 2인 획득(capture)은 차원 1에서 행위의 흔적으로서 생성된 문서가 기록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업워드는 차원 2를 정보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이용이 가능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특정 그룹에 의한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수행되는 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Upward, 2000, 121-122), 개인 및 조직에 의미를 지닌 문서들이 행위의 맥락과 연동하여 기록관리체제 내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 2를 통해 문서는 비로소 관리대상으로서의 기록으로 전환되는데, 여기서 개념화한 기록(record)은 수많은 문서 가운데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행위의 맥락이 확보되어 행위에 대한 증거(evidence)로서의 속성을 지닌 대상을 의미한다(Reed, 2005c, 101-107).

단 차원 2를 통해 문서가 기록으로 전환되는 데에는 전제가 있다. 바로 기록의 맥락성 및 증거성 확보를 위한 메타데이터의 필요성이다. 내용과 구조, 맥락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전자기록의 특성으로 인해 메타데이터는 다원적인 생산맥락 확보 및 타 기록과의 연계성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로 상정되며, 이에 컨티뉴엄의 차원 2에서는 기록화된 정보 및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직접적인 생산맥락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확보되어 기록이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Upward, 2000, 121-122). 이를 고려한다면 차원 2에서는 행위에 대한 흔적으로서의 문서가 메타데이터와 함께 하나의 단위로 편성되어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를 통해 단일 행위를 넘어선 보다 넓은 맥락 안으로 편입되게 된다(Reed, 2005b, 19-20).

증거 기반 레코드키퍼를 지향하는 컨티뉴엄 논리에서 차원 2인 획득은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Upward, 1996).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다원적이고 복잡화된 맥락 속에 수없이 생성·유통되는 0과 1의 비트스트림 가운데, 행위의 내역을 고스란히 반영한 증거로서의 기록을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적 관건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차원 2의 논리를 기반으로 컨티뉴엄에서는 증거로서의 기록 개념과 함께 사전적 평가로서의 의미를 지닌 획득 절차, 그리고 레코드키퍼 메타데이터 개념이 도출되게 된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컨티뉴엄 논리 속에 구현되어 있는 기록의 의미 및 속성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3. 컨티뉴엄에서의 기록의 의미 및 속성

3.1 기록의 증거성

우선 컨티뉴엄에서는 증거(evidence)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을 파악한다. 컨티뉴엄을 기반으로 제정된 호주의 기록관리 표준인 AS 4390에서는 기록이 지닌 이러한 증거성을 특화시킨 개념으로 ‘처리행위 기록’(transactional record) 용어를 사용하려 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록을 데이터 및 정보와는 다른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속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처리행위는 두 당사자 이상이 포함되어 수행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의 원인을 유발시킨 증거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처리행위에 대한 증거, 즉 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Duff, 1995). 이러한 사고에 기반해 컨티뉴엄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기록의 내용 및 정보로서의 속성에 주안점을 맞춘 전통적인 기록 개념을 지양하고, 업무행위와 관련된 증거적 맥락적 속성에 대해 컨티뉴엄 이론 전체에 걸쳐 초점을 맞춘다. 컨티뉴엄의 개발 목적은 이전에 비해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기록 생산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기록으로 확보하기 위한 레코드키퍼 상의 이론적 기반 구축이기 때문이다(Upward, 2000, 116-117).

이처럼 컨티뉴엄에서 기록이 지닌 증거로서의 속성에 주안점을 두는 배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연원을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기록의 증거성을 강조하는 호주의 레코드키퍼 사고이다(김명훈, 2021, 28-29). 이러한 사고는 기록의 내용을 기반으로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반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업무행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기록 형태로 생성·유지시킨다는 호주의 레코드키퍼에

대한 전통이 이어져 오게 된다(Piggott, 1998, 346).

주지하다시피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는 기록이 지닌 증거로서의 속성보다는 기록에 수록된 내용적 가치가 강조되었다. 대량의 기록 가운데 소수의 영구적 보존대상의 선별에 주안점을 둔 라이프사이클 모델 입장에서는, 기록의 생성 당시 지나게 되는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의미보다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호주에서는 공공기록관리체제 수립을 모색하기 시작한 20세기 중반부터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쉘렌버그의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을 거부하고, 기록이 지닌 증거로서의 속성을 강조한 켄킨슨의 아카이브 개념을 수용하게 된다(Upward, 1994). 즉 생산자가 만든 업무의 수행 내역에 있는 그대로 지속적인 관리조치(custody)를 부여하면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아카이브로 전환된다는 관념이 그것이다. 바로 이를 기반으로 증거로서의 기록을 강조하는 컨티뉴엄의 사고가 출발하게 된다(Upward, 1994).

또 다른 하나는 전자기록이 지닌 특성과 관련된다. 20세기 말 전자기록관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나타난 기록관리 영역 상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는 기록을 증거로서 파악하는 사고이다(Cook, 2001, 19). 즉 기록은 내용에 앞서 복잡화된 맥락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업무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자기록은 수없이 생성·유통되는 정보객체들 가운데 맥락을 지닌 정보객체로서 인식하게 되었다(Cox, 2001, 4-5). 환원하면 업무행위상의 맥락과 연계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전자기록관리 상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증거의 확보가 강조되는 이유는 전자기록이 지닌 논리적 실체로서의 성격과 관련지어 설명이 가능하다. 종이기록은 내용과 구조, 맥락이 종이라는 매체 위에 반영되어있는 관계상, 물리적 실체의 관리만으로도 증거로서의 속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 하지만 0과 1의 비트스트림으로 구성된 전자기록의 경우 이들 세 요소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관계상, 행위 내역을 반영한 증거로서의 속성 확보가 어렵게 된다. 아울러 다자간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처리행위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니며, 기록의 맥락 역시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게 된다(Bearman, 1994, 284-285).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행위 내역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록 획득이 전자기록관리 상의 선결과제로 부상되게 된다(김명훈, 2010, 134-135).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컨티뉴엄에서는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록 개념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법학 내지 역사학에서 파악하는 과거에 대한 사실로서의 증거 확보를 넘어, 이러한 증거를 유지·관리·활용시키는 절차 역시 포함된다(Brothman, 2002, 311-342). 업무행위를 반영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기록으로 생성되지 않는다면 추후의 역사적 연구적 활용도 무의미하다는 입장에서이다(Flynn, 2001, 84). 이에 컨티뉴엄에서는 개별 기록의 내용, 특히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기록 개념을 지양하고, 증거적, 처리행위적, 맥락적 속성을 강조한 기록 개념을 지향하고 있으며, 차원 1에서 생성된 도큐먼트를 차원 2를 통해 조직적 사회적 맥락과 연계시켜 행위의 증거로서 획득하는 것을 레코드키퍼의 핵심 절차로 상정하고 있다(McKemmish, 2001, 335-336).

3.2 이원적 기록 개념의 통합

다음으로 컨티뉴엄에서는 레코드와 아카이브의 구분 없이, 지속적 의미를 지닌 기록으로서 양자를 통합시켜 파악한다(McKemmish, 2001, 334-335). 이는 시간의 흐름과 결부하여 기록의 의미를 양분화시킨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반향으로, 양자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단일의 개념으로 간주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의 가치가 변화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물이 변화하는 것과 같이 자연의 진리일 수 있다. 컨티뉴엄에서의 비판은 기록을 생물체에 빗대어 기록이 지닌 의미 내지 가치를 이원적으로 단순화시켰다는 데 있다.

기실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기록에 대한 이원화된 사고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며 형성된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기본적으로 대량의 기록물 처리에 초점을

맞춘 실무적 전략으로 개발된 것으로, 수많은 기록 가운데 불필요한 기록 대부분은 폐기하고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를 지닌 소수의 기록을 선별하여 항구적으로 보존시킨다는 발상이 근간을 이룬다. 방대한 양의 기록 처리에 직면하여 라이프사이클 모델을 창안한 주체는 미국 국립기록보존소로, 그 사명은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를 지닌 소수의 기록을 선별해 보존하는 것이다.

이에 기록의 의미를 역사 내지 연구적 목적을 위한 가치에 우선적인 주안점을 두고 기록을 이원적 개념으로 구분하게 된다. 즉 생성된 전체 기록을 의미하는 레코드(record)를 물리적 형태나 특성에 상관없이 공적이나 사적인 공식적 활동과정에서 생산·접수되어 활동에 대한 증거 내지 그 안에 수록된 내용상의 정보적 가치를 가진 대상으로 파악하는 한편으로, 아카이브(archive)를 이들 레코드 가운데 연구 내지 참고 목적으로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선별된 대상으로 정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Schellenberg, 2002, 18).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역사 내지 연구적 목적을 위한 아카이브의 선별이며, 기록관리의 주안점은 아카이브의 선별 및 기술, 보존, 활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양분화된 기록관리체제를 지양하는 컨티뉴엄에서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 상정한 이원적 기록 개념을 거부한다. 우선 기록의 가치 변화는 반드시 시간의 흐름과 결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이다. 즉 시간의 흐름은 기록의 가치 변화에 대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아도 기록은 생성 당시부터 새로운 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이원적 거치 개념은 동시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가령 역사적 연구적 가치를 지닌 아카이브는 현재의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Brothman, 2001, 52-53). 최근의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사회 환경을 감안할 때 아울러 ICT 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동시적 활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기록의 의미 내지 가치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 상정한 것처럼 시간과 결부되어 단순화시킬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을 단일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 언급하는 기록의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는 실제 분리될 수 없다는 사고에 근거한다. 기록이 1차적 가치를 지녔다고 해서 2차적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며, 반대로 2차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1차적 가치가 없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김명훈, 2021, 28). 환원하면 기록이 지닌 두 가지 가치 개념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이에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을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레코드와 아카이브를 포괄하는, 또한 처리행위적, 증거적, 기억 목적을 위한 활용을 강조하는, 그리고 1초건 1천 년이건 기록이 유지되는 동안 아카이빙과 레코드키퍼에 대한 통일적 접근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게 된다(Upward, 1996).

3.3 기록의 동시적 다원적 가치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의 의미 내지 가치를 파악할 때 기존의 라이프사이클 모델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컨티뉴엄에서는 우선적으로 기록의 다양성(plurality)을 제시한다. 종이라는 매체에 문자로 작성된 문서 위주로 기록을 파악하였던 종이시대의 전통적 관념을 탈피하고, 행위 내역을 수록한 보다 다양한 유형의 기록들 역시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컨티뉴엄에서는 전통적인 문서 위주의 기록관리를 지양하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 존재를 전제로 하게 된다(McKemish, 2017, 125-126).

다음으로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을 지속성(enduring nature)을 지닌 대상으로 파악한다. 즉 기록은 생성과 함께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가치를 동시적으로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McKemish, 1997). 기존의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는 기록의 의미를 시간의 흐름과 결부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해왔다. 이를 위해 현용과 준현용 단계 사이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가치를, 준현용과 비현용 단계 사이에서는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를 평가하는 일회성의 프로세스를 통해 기록에 부여하였다. 아울러 오랜 시간이 흐른 후인 비현용 단계에서 생산목적과는 상관없는 지속적인 가치를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판단하여 기록의 의미를 고정시켜왔다.

이러한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관념은 업무적 필요를 의미하는 소위 1차적 가치와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를 의미하는 2차적 가치는 시간에 따라 분리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Brothman, 2001, 52-53). 즉 기록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덧입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록의 상반된 가치를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컨티뉴엄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러한 가치 구분을 거부하고, 생산과 동시에 모든 기록은 다원적인 맥락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가정한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생산·관리되는 기록은 복합적인 현실에 대응하며 의미 및 가치가 부단히 새롭게 재탄생한다는 것이다(McKemish, 2017, 139). 이는 기록은 평가자의 주관에 반영된 고정된 의미체이기 보다는, 다원적인 사회에서 기록의 생성 및 활용은 다양한 맥락 내에 존재한다는 신념에 기반을 둔 것이다(Flynn, 2001, 81). 이에 기록은 컨티뉴엄 모델상의 각 축선 및 차원을 넘나들며 다양한 엔티티들과의 관계 속에 동시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처럼 기록이 동시적 다원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컨티뉴엄 사고는 시간 및 공간 개념과 연관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간 개념을 살펴보면, 교통 및 통신 기술이 미발달한 전근대 사회에서는 상호 간의 행위가 발생하는 공간과 장소는 대체로 일치하게 된다. 즉 물리적 장소가 기록의 생성맥락이라 할 수 있는 상호 간의 행위가 발생하는 공간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간은 점차 물리적 장소 개념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다. 특히 최근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및 사이버 세계 등 상호 간의 행위가 발생하는 공간이 물리적 장소와 불일치하게 된다, 물리적 장소로서의 공간 개념을 초월하여, 동일한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공간에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간의 행위가 물리적 범위를 넘어 확대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인간의 행위가 시간 및 공간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 측면들을 이해하는데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시간 및 공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행해지는 상황 맥락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Giddens, 1998, 111-112). 과학기술이 미발달한 전근대 사회에서 상호 간의 행위는 동일한 시간 및 공간에 위치함으로써 가능하였다. 하지만 교통 및 통신의 발달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당사자 사이에도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특히 ICT 기술의 발전은 시간 및 공간을 초월하여 상호 간의 행위가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컨티뉴엄의 시공간 사고는 기든스의 ‘시공간 거리화’(time space distanciation)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시공간 거리화는 시간과 공간을 탈피한 사회관계 및 체제의 확장을 말하는 것으로, 수송 및 통신 그리고 사회통제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나온 현상이다(고영복, 2000). 즉 시간 및 공간 개념은 과학기술이 미발달한 전근대적 관념으로, 교통 및 통신,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은 시간 및 공간의 범위를 확장시켜 줌으로써 인간의 상호작용 범위를 예전이 비해 크게 넓혀준다는 것이다.

업워드는 이러한 시공간 거리화 개념을 차용하여 기록의 맥락 및 의미가 확대되는 차원을 도식화시킨다. 즉 컨티뉴엄 모델상의 차원 1은 개별적인 행위 주체들이 특정 처리행위를 수행하는 지점으로 이로부터 도큐먼트가 산출되며, 차원 2는 정보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이용이 가능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특정 그룹에 의한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수행되는 지점으로, 직접적인 생산맥락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부여된 기록이 획득되게 된다. 이어 차원 3은 시공간 거리화가 시작되는 단계로, 이를 위해 기록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기록의 조직화가 수행되며, 마지막으로 차원 4는 시공간 거리화가 더욱 심화되는 단계로, 조직 차원의 맥락을 넘어 사회 전체로 기록의 의미 및 활용 가치가 확대되게 된다(Upward, 2000, 121-122).

이와 같은 컨티뉴엄의 시공간 사고는 이론적으로 아직 형성단계에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도출되지 못하였다(Upward, 2000, 1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는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의 의미 도출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자간이 연계된 가상의 네트워크 공간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생성·활용되는 전자기록은 종래의 라이프사이클 모델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동시적이면서도 다원적 의미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 상정한 기록의 개념은 종이기록 환경에 최적화되어 개발된 것으로 전자기록에 원론적으로 대입하기 어렵다(Bailey, 1989-1990, 183). 우선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컨티뉴엄에서의 이와 같은 시공간 개념이 반영되어있지 않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의 변화와 맞물려 두 차례의 평가 과정을 통해 기록의 가치를 고정시키고, 이와 맞물려 물리적 실체로서의 종이기록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이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 상정한 시간 및 공간 개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는 기록의 다원적 가치를 상정한 컨티뉴엄과 달리 기록에 고정된 가치를 부여한다. 아울러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는 기록의 동시적 가치를 상정치 않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기록의 가치 개념과 맞물려 기록의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는 엄격히 분리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Brothman, 2001, 52). 이와 달리 논리적 실체로서 전자기록은 역동적인 특성상 라이프사이클의 여러 단계에 걸쳐 동시적으로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논리에서 컨티뉴엄에서는 시공간 개념을 도입하여 기록의 다원적 동시적 가치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의 서로 분리된 시간 및 공간과 연계된 고정화된 기록의 의미 부여에 대한 거부로, 기록이 생성·활용되는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기록이 지닌 동시적 다원적 의미를 강조하며 범사회적으로 이를 확장시키는 의도를 지닌다(Upward, 2000, 117-119). 즉 컨티뉴엄 도해 상의 차원을 달리하며 처리행위-활동-기능-목적으로 확장되는 업무행위와 연계되어 행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 개인 및 조직 차원의 기억으로서, 나아가 총체적 사회에 대한 집단기억으로서 기록의 의미 내지 가치를 동시적 다원적으로 모색하게 해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컨티뉴엄에서의 기록은 끊임없이 확대되는 맥락 메타데이터 요소들과 연계시킴과 아울러 시공간을 통해 의미 및 활용성을 다원적 동시적으로 지니게 되는 동적 객체로 파악할 수 있다(McKemmish, 2001, 349).

4. 전자기록 환경에서 컨티뉴엄의 의의 및 한계

컨티뉴엄은 종이기록 시대에 고착되어 온 라이프사이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이원화된 기록관리체제를 지양하고, 기록의 생산 이전부터 최종 보존 및 활용에 이르는 모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일원화된 사고로 정립한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컨티뉴엄은 1950년대 새로운 공공기록관리체제 수립을 모색하던 호주의 역사적 맥락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1990년대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한 전략적 사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컨티뉴엄은 종이기록 시대에서 전자기록 시대로 변이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당대의 기록학 연구성과들을 집대성하여 전자기록관리에 관한 기초 이론을 정립한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Harris, 2005, 161).

컨티뉴엄 모델을 체계화시킨 업워드는 모델 자체가 이론적 측면에 편중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자기록 환경에서 향후의 관련 시스템 및 전략, 기술 개발을 위한 계층화되고 상호연계된 모델을 생성시킬 수 있는 매우 명료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점에서 컨티뉴엄의 의미를 자평하고 있다(Upward, 2000, 116). 실제로 컨티뉴엄에서 제시하는 증거로서의 기록 개념, 획득 절차, 사전적 업무분석 논리, 분류상의 기능적 접근, 레코드키퍼 메타데이터 개념 등은 ISO 15489 및 ISO 23081, ISO 26122, DIRKS 매뉴얼 등의 개발로 이어지며 전자기록관리의 토대를 형성시켰다.

아울러 컨티뉴엄은 업무행위 결과로서의 기록 자체를 관리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업무행위 및 프로세스와 연계한 기록의 활용을 위해 생산·관리된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서 기록의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을 확대시킨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서 분석한 것처럼 컨티뉴엄은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역사적 가치에 중점을 둔 기록의 이원적인 개념을 거부하고, 시공간 이론에 입각해 기록이 지닌 동시적 다원적인 의미를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전자기록이 지닌 속성을 반영하여 사전적인 업무분석을 기반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기록 획득을 전자기록관리 상의 출발점으로 설정해준다. 나아가 컨티뉴엄은 로봇과 같이 자동화된 레코드키퍼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닌 다양한 레코드키퍼의 비전 및 목적을 포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다(Cook, 2000). 이러한 점에서 컨티뉴엄은 총체적 사회 내에서 기록의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티뉴엄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 컨티뉴엄의 이론적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성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Karabinos, 2018). 다만 지금까지 컨티뉴엄이 지닌 원론적 차원의 한계를 지적한 논의를 살펴보면, 우선 컨티뉴엄 이론이 지닌 난해성을 지적한다, 철학 및 사회학 등의 이론을 차용하여 이론적 개발에 치중한 결과, 실무자는 물론 전문 연구자조차도 컨티뉴엄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Piggott, 2012, 180). 이의 연장선 상에서 실제 레코드키퍼링 프로세스에서 컨티뉴엄이 지닌 의미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McKemmish, 2017, 145), 특히 컨티뉴엄 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공간 사고는 이론적으로도 실무상으로도 완벽히 개발되지 못하였다(Upward, 2000, 125). 아울러 시공간 사고를 통해 도출된 기록의 의미 확대 및 레코드키퍼링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추상적 논의에 그칠 뿐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Piggott, 2012, 187).

본고의 주제인 기록의 의미 및 속성과 관련해서도 컨티뉴엄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기록이 지닌 증거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춘 컨티뉴엄 이론 개발에서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다. 우선 기록이 지닌 기억으로서의 개념 및 속성에 대한 분석의 결여이다. 컨티뉴엄에서는 레코드키퍼링측에 상응하는 증거측을 설정하여, 행위의 흔적이 기록으로 획득된 후 그 의미가 조직 및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개념으로 기억(memor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억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기록이 지닌 기억으로서의 속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컨티뉴엄 관점에서의 그동안의 기억에 한 논의는 두 가지 논조이다. 하나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반론으로, 기록이 지닌 기억으로서의 의미는 시간과 결부되어 순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따르면 컨티뉴엄 도해 상의 차원 3인 조직적 기억과 차원 4의 집단기억은 서로 분리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기록의 다원적 의미를 추구하는 컨티뉴엄에서는 조직 차원의 기억과 사회적 차원의 집단기억은 동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McKemmish, 1997). 아울러 기억은 비현용단계에서 아카이브로 선별된 기록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기록이 지닌 기억으로서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Brothman, 2001, 52-71). 또 다른 하나는 기억 형성을 위한 기록의 활용 측면이다. 기록은 기억을 보존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기록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기억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기록에 담겨 있는 의미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될 때 기록은 집단기억 형성을 위한 도구가 된다(Piggott, 2005b, 327). 이러한 측면에서 기록전문가는 종래와 같은 수동적인 보관자 역할을 넘어, 컨티뉴엄의 차원 4인 다원화 과정을 통해 사회 및 공동체가 요구하는 기록의 필요성 및 의미를 찾고 이를 공유·활용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Reed, 2005a).

이와 같은 논의 역시 기록은 곧 기억이라는 입장에 토대를 둔 것으로, 기억의 개념 및 속성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억 담론은 문자화된 공기록 중심의 기록관리를 탈피하고, 최근의 사회 속에서 기록의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컨티뉴엄에서 지향하는 증거를 넘어 기록의 다원적인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지닌 기억으로서의 개념 및 속성, 기록과 기억과의 관계와 더불어, 행위에 대한 증거가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록이 공유·활용되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컨티뉴엄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생성·관리되는 기록은 다원적이면서도 동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라이프사이클 모델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록의 의미를 고정시키기 보다는, 복합적인 현실에 대응하며 기록의 의미 및 활용가치가 부단히 재형성되게 된다. 바로 이것이 개인 및 조직 차원을 넘어 범사회적으로 기록의 의미 확산을 모색하는 차원 4인 다원화 개념이다. 이러한 차원 4에서는 보다 넓은 사회적 차원에서 기록이 지닌 의미 및 활용가치가 새롭게 재형성되며, 한 사회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기록 속에 내재한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Upward, 2000, 122).

하지만 기록의 의미 확산 및 다원적 활용을 모색하는 차원 4와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도 방법론적으로도 개발이 저조하다(Piggott, 2005a, 65).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컨티뉴엄이 지닌 본원적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 컨티뉴엄에서는 행위에 관한 증거를 기록으로 획득하고 이러한 증거를 신뢰성 있게 관리하는 차원 1~3에 초점을 맞추어 왔을 뿐, 기록의 사회적 의미 확산 내지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차원 4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못하였다(Bettington, 2004, 48, 66).

컨티뉴엄의 차원 4는 기록을 평가자의 주관에 반영된 고정된 의미체이기 보다는 다원적인 맥락 내에 존재한다는 신념에 기반을 둔 것으로, 조직 차원을 넘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기록의 의미를 모색하고 활용시키는 프로세스의 기반이 된다(Reed, 2005b, 19-20). 기록은 항상 새롭게 의미가 생성·활용될 수 있다는 컨티뉴엄의 기록에 대한 사고는 바로 차원 4를 통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컨티뉴엄은 궁극적으로 차원 4를 구현할 수 있는 아카이브즈 구축과 연관된 프로세스의 구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에 대한 해명 없이는 컨티뉴엄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Upward, McKemish, & Reed, 2011, 227).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차원 4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 수립 및 이를 토대로 한 사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개념 및 속성에 대한 분석 역시 컨티뉴엄에서는 제시치 못하고 있다. 최근 전자기록을 정보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서서히 제기되고 있다. 기록은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의미와 함께, 그 안에 수록된 내용이 지닌 정보로서의 가치 또한 지니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재하다. 이는 행위내역을 반영한 증거로서의 기록 획득이 용이치 않는 전자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귀결로, 당초 컨티뉴엄의 개발 목적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기록으로 확보하기 위한 레코드키퍼 상의 이론적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Upward, 2000, 116-117).

기실 컨티뉴엄의 논리 속에서도 기록을 정보로서 파악하는 관점이 행간에 내재되어 있다. 이는 먼저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양분화된 기록관리체제를 비판한 아서튼의 사고를 수용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서튼은 1980년대 기록관리는 역사학 목적에 둘 것인가 정보관리 목적에 둘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전개된 캐나다의 상황에서, 기록은 미래의 역사가를 위해 생성되는 것이 아닌 우선적으로 업무적 목적 및 활용을 위해 생성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Atherton, 1985~1986, 43, 47-48).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에 초점을 둔 라이프사이클 모델을 거부한 컨티뉴엄에서는 이러한 아서튼의 견해를 수용해, 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록의 현용적 목적을 강조하게 된다(Upward, 1994). 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에 우선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컨티뉴엄의 평가 논리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컨티뉴엄에서는 평가를 어떠한 기록이 획득되어야 하며, 조직의 영위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반복적인 절차로 인식한다(McKemish, 1998). 이는 비현용단계에서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의 선별에 초점을 맞추었던 라이프사이클 모델과는 다른 관점으로, 수많은 0과 1의 비트스트림 가운데 조직 및 업무에 필요한 대상으로 기록으로 획득해 필요한 기한 동안 유지·활용시킨다는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기록을 증거로서 뿐만 아니라 정보로서 인식하는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 즉 차원 1과 차원 2를 통해 증거로서 획득된 대상을 레코드로 명명했다면, 이러한 레코드를 차원 3을 통해 조직화시켜 레코드키퍼시스템에서 유지·관리·활용시키는 대상을 아카이브로 개념화시켰다. 여기서 아카이브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처럼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를 지닌 개념만이 아닌, 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동적인 개념체라 할 수 있다(Hofman, 2005, 136-137). 즉 환경에 적응하며 부단히 변모하는, 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증거이자 정보라는 말이다.

사전적 업무분석 논리에도 정보관리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컨티뉴엄에서는 업무활동 결과로서의 기록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업무행위 및 프로세스와 연계한 활용을 위해 기록이 생산·관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Flynn, 2001, 83-84). 아울러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사전적인 업무분석을 기반으로 맥락의 원천적인 확보가

필요하게 되며, 수많은 0과 1의 비트스트림 가운데 다원적인 맥락을 확보한 기록을 증거로서 획득하기 위해서도 사전적인 업무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이 생성되기 이전부터 사전적인 업무분석이 수행되고 더불어 기록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다(Wickman, 1999, 122-123). 이러한 사전적인 업무분석은 본래 정보학 및 컴퓨터공학 등에서 사용되어 온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정보의 투입·산출 절차 및 정보의 흐름을 분석해 업무에 활용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하지만 컨티뉴엄에서의 사전적 업무분석 논리는 기록이 지닌 복잡화된 맥락 파악 및 이를 통한 증거의 획득 방안에만 초점을 맞출 뿐, 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관점은 결여되어 있다.

이처럼 컨티뉴엄에는 기록을 정보로서 파악할 수 있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개념 및 속성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록은 조직에서 매일매일 수행되는 업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에서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이를 통한 기록관리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컨티뉴엄에서는 증거의 확보 및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기록관리의 필요성 내지 이점 개발에는 소극적이었다(Nesmith, 2008, 39). 전자기록의 속성을 감안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는 레코드키퍼 상의 최우선 선결과제가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전자기록이 생성·유통·활용되는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증거의 확보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의미 내지 가치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컨티뉴엄 도해 상의 축선 및 차원 분석을 통해, 전자기록 환경에서 컨티뉴엄 이론 속에 함유된 기록의 의미 및 속성을 고찰하였다. 컨티뉴엄은 기본적으로 전자기록이 지닌 특성 및 이에 따른 기록의 속성에 대한 재해석에서 출발한 이론 체계로, 차원 1에서 생성된 행위의 흔적들 가운데 차원 2에서 수행되는 행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의 기록 획득을 가장 기본적인 기록관리 절차로 상정한다. 이를 토대로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의 내용적 가치에 주안점을 둔 라이프사이클 모델과 달리 증거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을 개념화시키고 있으며, 레코드와 아카이브로 이원화된 기록 개념을 거부하고 양자를 단일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의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는 엄격히 분리된다는 기존의 시각을 탈피하여, 컨티뉴엄에서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생산·관리되는 기록은 복합적인 현실에 대응하며 메타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그 의미 및 가치가 부단히 새롭게 재탄생한다는, 다원적 동시적 의미를 지닌 동적 객체로 파악한다.

이와 같은 기록에 대한 새로운 사고는 컨티뉴엄 논리상의 기록관리에 대한 새로운 사고로 확대된다. 이원화된 기록 개념을 거부하고 하나의 기록으로 파악하는 시각은 단절적 기록관리가 아닌 연속적인 기록관리를 지향하게 되며, 신뢰할 수 있는 증거 및 다원적인 메타데이터 확보를 위해 환경 및 업무에 대한 사전적 분석이 필수적으로 수행되게 한다. 또한 수많은 0과 1의 비트스트림 가운데 개인 및 조직, 사회에 의미를 지니는 대상을 기록으로 확보한다는 획득이란 절차가 새롭게 설정되며, 다원적 동시적 가치를 위해 기록이 내용에 우선하여 다원적인 맥락에서 기록의 의미 및 활용가치를 모색하는 기능평가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컨티뉴엄의 기록에 대한 이러한 사고는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 환경으로 변이하는 패러다임 전환기의 과도기적인 산물로 파악할 수 있다. 기록은 증거이자 정보로서 의미를 지닌다면,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이 지닌 증거로서의 속성에 우선적인 강조점을 둔다. 내용과 구조, 맥락이 서로 분리되어 0과 1의 비트스트림으로 구성된 전자기록의 특성상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록 획득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후의 기록관리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컨티뉴엄 개발의 근본 목적을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기록 생산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기록으로 확보하기 위한 레코드키퍼 상의 이론적 기반 구축이라는 업워드의 언급대로(Upward, 2000, 116-117), 이러한 증거성을 모토로 사전적 업무분석, 획득 절차, 기능분류, 메타데이터

등 실무적 방안 역시 활발히 개발되어왔다.

기록이 지닌 증거성에 초점을 맞춘 관계로 인해, 컨티뉴엄 논리 속에는 기록을 정보로서 파악하는 관점이 행간에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 역시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아울러 컨티뉴엄의 차원 3 및 4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이 지닌 기억으로서의 개념 및 속성에 대한 분석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컨티뉴엄에서는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반향으로 기든스의 시공간 이론을 도입하여 기록의 다원적이면서도 동시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네트워크화된 기록 생성 환경에서 가능성만을 제시한 것일 뿐 이론적으로도 실무적 관점에서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였다(Upward, 2000, 125).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컨티뉴엄은 다양한 측면에서 아직 미완성의 이론 체계라 할 수 있다. 전자기록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기록의 증거성 및 다원적 동시적 가치, 이원적 기록 개념의 통합 등 기록의 의미 및 속성을 새롭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기록이 지닌 정보 및 기억으로서의 속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을 제시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컨티뉴엄은 실제 기록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실무적 요구들을 설명하거나 해결해주지는 못한다(Piggott, 2012, 188). 단적인 예 중의 하나는 라이프사이클 모델과의 관계 설정이다. 흔히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시효를 다하고, 컨티뉴엄이 이를 대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업워드는 사실 양자 간에는 서로 공유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도 존재한다고 언급한다(Upward, 2000, 126). 이는 곧 이론적 개발에 초점을 둔 컨티뉴엄이 제시하지 못하는 실무적 방안을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하나의 이론이라기 보다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여 개발된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컨티뉴엄은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기원을 둔 것이지만, 라이프사이클 모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지만,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컨티뉴엄의 반론은 기록을 이원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와 맞물려 역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양분화된 기록관리체제를 고착화 시켰다는데 있다. 하지만 컨티뉴엄이 아직까지도 제시하지 못한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강점 역시 존재한다. 최소한의 가용자원으로 대량의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현대 기록생산 환경에서, 기록의 생성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제공해주며(Hoke, 2011, 29), 아울러 이를 위한 책임 및 역할을 전문화, 분업화시켜주는 것이다(Brothman, 2001, 53-54). 전자기록 환경에서도 전 세계 공공기록관리 영역을 비롯한 실무현장에서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체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Yusof & Chell, 2000, 135).

이렇듯 컨티뉴엄은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체적 사회 내에서 기록의 의미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주지만, 종이기록 환경에서 전자기록 환경으로 변이하는 패러다임 전환기의 아직 미완성된 이론 체계라 할 수 있다. 기록관리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기록을 현실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사명을 맞고 있다면, 이론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실무적 방안과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 이론 및 방법론을 끊임없이 개발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컨티뉴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기초 연구는 물론, 컨티뉴엄의 이론적 구상을 현실 가능한 방법론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영복 (2000). 사회학 사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김명훈 (2010). 레코드 컨티뉴엄과 평가, 그리고 기록콘텐츠: 기록콘텐츠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정보관리연구, 41(3), 131-153.

<https://doi.org/10.1633/JIM.2010.41.3.131>

김명훈 (2017). 레코드 컨티뉴엄 기반 기록콘텐츠의 의미 모색: 종교기관 기록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2, 246-281.

- <https://doi.org/10.20923/kjas.2017.52.246>
- 김명훈 (2021).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원에 관한 연구: 라이프사이클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8, 5-39.
<https://doi.org/10.20923/kjas.2021.68.005>
- 노명환 (2016). 기호학 및 '성리학적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의 이해: 레코드 컨티뉴엄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문화연구*, 57, 149-219.
- 원종관 (2007).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이승역 (2001).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 체제 전망: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도적 의의와 특성. *기록학연구*, 4, 31-62.
<https://doi.org/10.20923/kjas.2001.4.031>
- Atherton, J. (1985~1986). From Life Cycle to Continuum: Some Thoughts on the Records Management-Archives Relationship. *Archivaria*, 21, 43-51.
- Bailey, C. (1989~1990). Archival Theory and Electronic Records. *Archivaria*, 29, 180-196.
- Bearman, D. (1994). *Electronic Evidence: Strategies for Managing Records in Contemporary Organizations*. Pittsburgh: Archives & Museum Information.
- Bettington, J. (2004). Standardised Recordkeeping: Reality or Illusion?. *Archives & Manuscripts*, 32(2), 46-69.
- Brothman, B. (2001). The Past that Archives Keep: Memory, History, and the Preservation of Archival Records. *Archivaria*, 51, 48-80.
- Brothman, B. (2002). Afterglow: Conceptions of Records and Evidence in Archival Discourse. *Archival Science*, 2(3/4), 311-342.
- Brown, J. S. & Duguid, P. (1996). The Social Life of Documents. *First Monday*, 1(1). Available:
<https://firstmonday.org/ojs/index.php/fm/article/view/466/820>
- Cook, T. (2000). Beyond the Screen: The Records Continuum and Archival Cultural Heritage. Paper presented at the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Conference. Available: <http://www.mybestdocs.com/cook-t-beyondthescreen-000818.htm>
- Cook, T. (2001).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1), 3-24.
- Cox, J. R. (2001). *Managing Records as Evidence and Information*. Westport, Conn.: Quorum Books.
- Duff, W. (1995). Defining Transactions to Identify Records and Assess Risk. Cox, J. R. ed. *University of Pittsburgh Recordkeeping Functional Requirements Project: Reports and Working Papers – Progress Report 2.(LIS057/LS95001)*. Pittsburgh: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University of Pittsburgh.
- Duranti, L., Eastwood, T., & MacNeil, H. (2002). *Preservation of the Integrity of Electronic Recor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 Flynn, J. A. S. (2001). The Records Continuum Model in Context and Its Implications for Archival Practic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2(1), 79-93.
- Giddens, A. (1998). *Sociology*. 김미숙, 김용학, 박길성, 송호근, 신광영, 유홍준, 정성호 옮김 (1998). *현대 사회학(3판)*. 서울: 을유문화사.
- Harris, V. (2005). Recordkeeping and Records Continuum Thinkers: Examining a Seminal Australian Text. *Archives & Manuscripts*, 33(2), 160-170.
- Hartland, R., McKemmish, S., & Upward, F. (2005). Documents.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24)*. McKemmish, S., Piggott, M., Reed, B., & Upward, F. 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ersity.
- Hofman, H. (2005). Archive.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24)*. McKemmish, S., Piggott, M., Reed, B. & Upward, F. 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ersity.
- Hoke, E. J. G. (2011). Records Life Cycle: A Cradle-to-Grave Metaphor.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45(5), 28-32.
- Hurley, C. (1998). The Making and Keeping of Records(1): What Are Finding Aids For?. *Archives & Manuscripts*, 26(1), 58-77.

- Karabinos, M. (2018). In the Shadows of the Continuum: Testing the Records Continuum Model through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Migrated Archives'. *Archival Science*, 18(3), 207-224.
- McKemmish, S. & Upward, F. (1991). Archival Document: A Submission to the Inquiry into Australia as an Information Society. *Archives & Manuscript*, 19(1), 17-31.
- McKemmish, S. (1994). Are Records Ever Actual?. *The Records Continuum: Ian Maclean and Australian Archives First Fifty Years*. McKemmish, S. & Piggott, M. eds. Clayton: Ancora Press & Australian Archives.
- McKemmish, S. (1997).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A Continuum of Responsibility. Available: https://bridges.monash.edu/articles/conference_contribution/Yesterday_today_and_tomorrow_a_continuum_of_responsibility/4037433
- McKemmish, S. (1998). The Smoking Gun: Recordkeeping and Accountability. Available: https://bridges.monash.edu/articles/conference_contribution/The_smoking_gun_recordkeeping_and_accountability/4037394
- McKemmish, S. (2001). Placing Records Continuum Theory and Practice. *Archival Science*, 1(4), 333-359.
- McKemmish, S. (2005). Traces: Document, Record, Archive, Archives.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24)*. McKemmish, S., Piggott, M., Reed, B. & Upward, F. 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ersity.
- McKemmish, S. (2017). Recordkeeping in the Continuum: An Australian Tradition. *Research in the Archival Multiverse*. Gilliland, J. A., McKemmish, S. & Lau, J. A. eds. Clayton: Monash University Publishing.
- McKemmish, S., Acland, G., Ward, N., & Reed, B. (1999). Describing Records in Context in the Continuum: The Australian Recordkeeping Metadata Schema. *Archivaria*, 48, 3-37.
- McKemmish, S., Faulkhead, S., & Russell, L. (2011). Distrust in the Archive: Reconciling Records. *Archival Science*, 11(3-4), 211-239.
- Nesmith, T. (2008). Re-exploring the Continuum, Rediscovering Archives. *Archives & Manuscripts*, 36(2), 34-53.
- Piggott, M. (1998). The History of Australian Record-keeping: A Framework for Research.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47(4), 343-354.
- Piggott, M. (2005a). Building Collective Memory Archives. *Archives & Manuscripts*, 33(1), 62-83.
- Piggott, M. (2005b). Archives and Memory.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24)*. McKemmish, S., Piggott, M., Reed, B. & Upward, F. 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ersity.
- Piggott, M. (2012). *Archives and Societal Provenance: Australian Essays*. Oxford: Chandos Publishing.
- Reed, B. (2005a). Beyond Perceived Boundaries: Beyond Perceived Boundaries: Imagining the Potential of Pluralised Recordkeeping. Available: https://www.records.com.au/pdf/Beyond_perceived_boundaries.pdf
- Reed, B. (2005b). Reading the Records Continuum: Interpretations and Explorations. *Archives & Manuscripts*, 33(1), 18-43.
- Reed, B. (2005c). Records.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24)*. McKemmish, S., Piggott, M., Reed, B., & Upward, F. 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ersity.
- Schellenberg, T. R. (1956).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이원영 옮김 (2002). *현대 기록학개론*. 서울: 진리탐구.
- Upward, F. (1994). In Search of the Continuum: Ian Maclean's 'Australian Experience' Essays on Recordkeeping. Available: https://bridges.monash.edu/articles/In_search_of_the_continuum_Ian_Maclean_s_Australian_Experience_Essays_on_Recordkeeping/4060014
- Upward, F. (1996).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 - Part One: Post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Available: https://bridges.monash.edu/articles/Structuring_the_records_continuum_-_part_one_postcustodial_principles_and_properties/4037445/1
- Upward, F. (2000). Modelling the Continuum as Paradigm Shift in Recordkeeping and Archiving Processes, and Beyond – A Personal Reflection. *Records Management Journal*, 10(3), 115-139.

- Upward, F., McKemmish, S., & Reed, B. (2011). Archivists and Changing Social and Information Spaces. *Archivaria*, 72, 197-237.
- Wickman, D. (1999). What's New? Functional Analysis in Life Cycle and Continuum Environments. *Archives & Manuscripts*, 26(1), 114-127.
- Yusof, M. Z. & Chell, W. R. (2000). The Records Life Cycle: An Inadequate Concept for Technology-generated Records. *Information Development*, 16(3), 135-14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Myoung Hun (2010). Records Continuum, Appraisal and Archival Contents: Building the Concept of Archival Content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1(3), 131-153. <https://doi.org/10.1633/JIM.2010.41.3.131>
- Kim, Myoung Hun (2017). A Study on the Meaning of Record Contents Based on Record Continuum: Focusing on the Record Contents of Religious Institutions.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52, 246-281. <https://doi.org/10.20923/kjas.2017.52.246>
- Kim, Myoung Hun (2021). A Study on the Origin of Record Continuum Theory: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Record Lifecycle Model.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68, 5-39. <https://doi.org/10.20923/kjas.2021.68.005>
- Ko, Young Bok (2000). *Dictionary of Sociology*. Seoul: Socio-Culture Research Press.
- Lee, Seung Eok (2001). The Prospect of 'Recordkeeping Regime'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Examin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bles of Transactions for Records Scheduling by PRA Act.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4, 31-62. <https://doi.org/10.20923/kjas.2001.4.031>
- Noh, Meung Hoan (2016). Understanding of Records/Archives and Archives Management Based on the Semiotics and Constructivism of Sunglihak: Focused on the Understanding and Supplement of Records. *Continuum. Journal of History and Culture*, 57, 149-219.
- Won, Jong Kwan (2007). A Study on Reconciliation of Evidence and Memor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Continuum. Thesis of Master in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